

#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

### 국회 지적에도 또 적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이 82%

### 최근 5년간 쿠팡의 위반 건수, 동종업계 대비 30배 수준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는 데 이어,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무주·진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

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 CF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 CF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

진 4건에 그쳤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표했던 반박에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히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 “내란 이후의 세상, 현장서 답할 것”

### 혁신당 조국 대표, 전북 서남권 민생 현장 순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부안·고창을 잇따라 방문해 전통시장과 지역 현장을 돌며 상인·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일정에선 신장식 수석최고위원, 정춘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강경숙 의원,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허업손실은 10조가 넘지만 보상은 10분의 1도 안 된다”, “30여 년 ‘희망고문’으로 지역의 고통이 누적됐다”고 지적하며 실질 보상과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고창에서는 유기상 고창군지역위원장 등과 함께 W2 카페에서 ‘민생공감커피’ 형식의 정책설명회를 열고, 조국 대표와 지도부가 주민 질문에 답하는 대화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국 대표는 첫 방문지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전북은 특정 정당에 독점정치를 해왔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이다”, “삶의 질 지수 1위 전북을 만들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당을 지지하면 국민의 힘을 돕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런 걱정은 불붙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느냐”고 답했다. 김민영 정읍시지역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의 도시답게 정읍에서부터 민생중심의 정치를 펼치고, 나아가 개혁의 경쟁을 시작해서 전북의 변화와 혁신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1시 부안 상설시장에서는 정책 설명회를 열고 군민·소상인들과 직접 소통했다. 추운 날씨에도 800여 명이 넘는 상인과 군민이 모여 현장 열기를 더했다. 김성수 부안군지역위원장은 “탄핵의 깃발을 들었던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민생 중심의 혁신으로 부안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 순회방문을 계기로 전통시장과 농어촌의 고통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형 정치로 강화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환경·지역균형 전북 맞춤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만호 기자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 순회방문을 계기로 전통시장과 농어촌의 고통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형 정치로 강화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환경·지역균형 전북 맞춤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만호 기자

## “전북이 세계로 가는 길, 함께 해서 영광이었다”

###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34년 7개월 공직 여정 마무리

한 사람의 공직 인생은 그가 남긴 발자취, 그가 걸어온 길로 기억된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퇴임식을 갖고 34년 7개월간의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며 공로 연수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동료 국·과장과 직원들이 함께 이날 퇴임식은 한 시대를 묵묵히 살아온 공직자에 대한 따뜻한 헌사의 자리였다.

퇴임식 행사를 마친 뒤 바로 국장실로 이동하여 인터뷰를 위해 다시 만난 이 국장의 표정에는 답답함과 설렘이 함께 묻어났다. 그는 “공직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길이기도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1991년 6월 8일, 9급 공무원으로 첫 발령을 받았던 날을 그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한다. 그해 11월 새만금 사업이 착공했고, 이후 전북의 급속한 변화들은 그의 공직 생활과 함께 흘러왔다. “그때는 상상도 못 했죠 이렇게 긴 시간을 전북과 함께 할 줄 몰랐죠”라는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국장은 공직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올해 2월 28일을 꼽았다. 콜리야 서울을 제치고 전북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순간이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날이었다.” 그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지난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는 퇴임 이후에도 “전주 하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정책은 작은 정책 시리즈다. 김완주 전 전북지사 시절, 삶의 질 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된 작은 목욕탕, 작은 영화관,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 동네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전북의 생활 문화를 바꿔놓았다.

특히 작은 목욕탕 사업은 전북의 14개 시·군에서 실제로 구현됐고, 이후 농식품부 국가사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 국장의 “정책은 결국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은 그가 걸어온 행정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재임하며 그는 관광정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미륵사지의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고창 상하 농원의

관광 명소화, 그리고 전북 투어 패스 사업은 전북 관광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특히 전북 투어 패스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로, 현재는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아쉬움이 없었던 공직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부안 부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맞이했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미국 잼버리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더 잘해보고 싶었다.” 홈스테이와 학생 캠핑 프로그램 등 군 차원의 준비를 많이 했지만 여러 여건 속에서 대화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공직을 후회하지 않는다. “동료들이 있었고, 전북도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거듭했다.

한편 이정석 국장은 이제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 /1만호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불가피”

### 민주 안호영 의원

### 김성환 장관 발언 “환영”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주·무주·진안)는 지난 28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 발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추진 발언을 환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자신이 주장해 온 ‘에너지 자선지식’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의 타당성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을 고집하며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중심 사고에 갇힌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전망 구축이 어려운 현실과 RE100 대응,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새만금 이전은 선택이 아닌 현실”이라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으로 안 위원장은 “불가능한 용인이 아닌,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라며 “지방 이전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 도의회 소식지 제93호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 문승우)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겨울호(제9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제422회·제423회 임시회에서 다루된 의정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해당 회기 동안 진행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의 생생한 현장 활동과 2025년 도의회 의정 결산 등을 담았다. 또 도정질문과 조례 제·개정 등 도정용 견제, 감시하고 변화를 이끌어온 의정 활동도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 장리태 제·개정 조례는 전북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28건이며, 권의 결의안은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등 20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농업용 드론 활용도가 높은 전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공인공지능 전북분원 필요’와 빠르게 늘어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정주 생태계 전환 시금’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정책 제안들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를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3차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지원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민화로 만들었다.

포토에세이는 새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찬 기상의 진안 마이산을 담았고, 특별기고는 전북 대전환의 분기점인 새해, 도전과 내일을 다져나갈 전북의 과제, 도를 짚었다. /1만호 기자

## “이재명 정부 청와대 복귀 실용적 국정운영 재도약”

### 민주 이원택 의원 “국가 상징성 회복 등서 의미 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29일 입법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대해 “비정상적 정상화이자 실용적 국정운영으로 나아가는 재도약의 선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공식 업무가 시작된다”며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국정 운영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상징적 공간이자 안정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작동해 온 장소임을 강조하며, 이번 복귀가 △국가 상징성 회복 △보안·경호 체계 안정 △행정 효율성 강화 △외교적 품격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너졌던 국정의 기분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적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

실이 보안 취약성, 경호 위험,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행정 동선 분산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정운영의 효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용적 판단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복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상징되는 ‘용산 시대’의 정치적·상징적 단절을 의미한다며, “혼란과 불신의 정치를 넘어 책임과 안정의 국정운영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적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 대해서도 “새해부터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내용”이라며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국정운영이 안정되고 생·경제 회복, 개혁과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정책이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 민주 도당 “여객기 참사 1주기… 사고 원인규명 끝까지 책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당과 국회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장승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사고의 철저적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과 국회 차원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무안공항 활주로 계기착륙시설 등단의 설계·시공·관리 과정의 적정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2025 하반기 이임식 가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는 29일 의원총회 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임식은 이날 퇴임하는 곽효승 사무처장과 이리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박선주 교육전문위원 교육팀장, 양지숙 입법정책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오랜 세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선배 공무원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공유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보여준 책임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아쉬움 속에서도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네 분이 걸어오신 긴 여정의 발자취 하나 하나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유산”이라며 “여러분의 새출발



에 건강과 행운, 무한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곽효승 사무처장은 “여러분과 공직생활을 함께하며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후배 공무원 여러분도 맡은 자리에서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만호 기자

## 전주가 잡아야 할 피지컬 AI 추진전략 모색

### 국주영은 도의원, 토론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12,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피지컬 AI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형 피지컬 AI의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1조 원 규모의 ‘협업자’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 에타 면적 확장과 전략 R&D 선정으로 실증·연구 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한 만큼, ‘전북형 피지컬 AI’의 방향과 우선과제를 정리하고 ‘실증사업화 확산’으로 이어질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주영은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이제 AI는 화면 속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이 강점을 가진 산업·현장 수요와 연결해 실증에서 사업화, 확산으로 이어져 전북 기업이 산업의 주체가 되는 ‘전북형 모델’을 빠르게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